

전주시,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시동

법조인·정치인 등 28명 구성 추진위원회 출범 예산확보 거쳐 2023년까지 기념관 등 조성키로

전주시가 현 전주법원·검찰청 부지에 법조삼현 로파크를 건립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3일 전주시정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한승헌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과 정치권, 법학 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사업추진방향과 국비확보 방안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시료사업내용은 △법조삼현 기념관 △법조인 명예의 전당 △법 역사관 △법 체력관 △로(LOU)-디지털 도서관 등 법조삼현을 기념하면서 로파크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한승헌 변호사를 비롯한 국내 영향력 있는 법조인과 정치권, 관련학과 교수 등 28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향후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을 위한 방향설정과 세부 사업 발굴 지원, 정부를 상대로 한 국비확보 활동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추진위원회를 통한 세부사업 발굴은 물론, 법조삼현 가족 대표와의 간담회, 법조삼현의 생애와 로파크 건립 세미나 개최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주시는 지난 3일 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한승헌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과 정치권, 법학 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전주법원·검찰청 부지 및 건물을 법조삼현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 국회, 기획재정

부, 법무부 등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전주시법 법원장·검사장에게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사업추진을 준비해왔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한승헌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조삼현의 참뜻을 기억하고, 한국 법조의 기틀을 만들고 지켜온 법조인들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뜻깊은 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법에 대한 인식개선, 민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추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시의 기억과 시민들의 삶이 담긴 시설인 법원·검찰청 부지를 재생하는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은 덕진권역 뮤지엄벨리의 핵심"이라며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완산권역 구도심 100만평 프로젝트와 덕진권역 뮤지엄벨리와 연계해 전북지역 14개 시군이 상생 발전하는 전북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인후·반촌 재개발 해제지역 '살기 좋은 동네'로

전주시, 도시재생 뉴딜 추진 위한 활성화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전주시가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구에서 해제된 인후 생활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정주여건이 열악한 인후·반촌 저층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지난 2016년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구에서 해제된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시는 올해 이곳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대응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비기본시설 정비와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해 갈수록 쇠퇴하는 구도심 저층주거지를 살고 싶은 동네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곳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주택 노후화 등 도시 쇠퇴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전주시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난 2012년 10개 구역, 2015년 2개 구역, 2016년 8개 구역 등 20개 구역으로, 앞으로도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 등의 이유로 추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의 주거환경 관리와 기초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인후·반촌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밟아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뒤 전주형 주거지원형 도시

재생 뉴딜사업 모델을 수립키로 했다.

이들 바탕으로 올 하반기 국토부에서 실시할 예정인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응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민주도형 주거지재생사업 △전주형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마을주택 조성사업 △빈집 재생 및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의 주거지재생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인 우산장 운구상 장인과 협업을 지우산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 어울림센터를 중심으로 마을기업 육성과 서로 돌봄,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 등 주거환경관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전주시의 구도심 쇠퇴 양상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주시민의 자체적인 주거환경관리 방안 및 대안 사업 모델을 발굴해 맞춤형 주거지재생을 추진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만의 전통문화...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사관행렬·영접례 등 구성 시민·관광객과 포토타임도

조선왕조실록을 습기와 충해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바람에 날리는 '조선왕조실록 포쇄' 행사가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어우러진 가운데 지난 5일 전주에서 재현됐다.

조선왕조실록은 국보 제151호이자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전주는 과거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에 보관했던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유일한 도시다.

이날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는 △조선왕조실록 포쇄 사관행렬 △기념식 및 영접례 △포쇄재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운영됐다.

먼저 포쇄 사관이 '포쇄를 시행하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 한양에서 내려오는 사관 일행과 행렬을 재현하는 사관행렬이 전주한옥마을 은행로와 최명회길, 한지길을 거쳐 태조로로 진입해 경기전 내 전주사고로 향했다.

사관행렬은 중간 지점인 은행로 사거리와 경기전 앞에서 시민과 관광객과 포토타임도 가졌다.

이어, 조선왕조실록의 포쇄를 축하하는 간략한 기념식이 진행됐으며 전주사고에 포쇄사관행렬이 도착한 후에는 전주부윤이 임금의 명을 받고 내려오는 사관을 맞이하는 영접례와 함께 본격적인 조선왕조실록 포쇄가 재현됐다.

메인행사인 포쇄에서는 사관과 전주부윤 일행이 4배한 후 사고 안에 들어가 실록케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조선왕조실록을 습기와 충해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바람에 날리는 '조선왕조실록 포쇄' 행사가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어우러진 가운데 지난 5일 전주에서 재현됐다.

교생들을 시켜 실록케를 사고 밖으로 꺼낸 뒤 실록케에서 조선왕조실록을 꺼내서 바람에 날렸다.

날리는 작업이 끝난 뒤에는 천궁 및 참포가투가 든 자루를 실록케에 넣고 초주지 및 붉은색 보자기를 실록케 바닥에 놓은 뒤 실록케에 조선왕조실록을 넣고 보자기로 감싼 다음 자물쇠를 채우고 종이를 붙여 사관이 수결(手決)했다.

사관이 실록의 실록케 보관 사항과 포쇄 과정에 대한 보고서인 형지안(形止案)을 작성하고, 실록케를 사고에 다시 넣은 다음 사고 외면에 자물쇠를 채워 종이를 붙여 수결하고, 포쇄인원들이 전주사고 앞에서 4배하면

서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가 마무리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고 재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포쇄의 전 과정에 대한 해설을 곁들이고 포쇄를 주제로 한 창작 판소리인 '포쇄가(歌)'도 진행되기도 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는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범죄신고 112·화재신고 119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전주시,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유공자 표창·다채로운 행사 마련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지난 3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어린이와 아동복지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난타 공연으로 포문을 연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문화행사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1부 기념식에서는 24명의 모범어린이와 아동복지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어린이현장 낭독과 축사,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부르는 어린이날 노래 합창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2부 행사는 어린이들의 방

학 '버블 매직쇼' 공연 등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가 진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야외마당에는 △소록유산어린이재단과 굿네이버스 등 아동 NGO 단체와 함께하는 실종유괴예방 캠페인 △아동학대예방 체험 부스 △솜사탕·슬러시 만들기 △비눗방울과 풍선아트 등 체험행사 △전주시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전시 △포토존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풍성함을 더했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미래의 희망이자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이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추가 입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사현장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건설사의 유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수사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기자

2019 전주한지문화축제 시민 참여 속에 마무리

한지 꽃 화사하게 피우다

공예대전 수상작 전시·조선족 세시풍속화 초청전 '눈길'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지 무궁화꽃 정원 큰 인기 끌어

전주의 5월을 아름다운 한지 꽃으로 가득 채운 '제23회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시민과 한지인, 여행객의 참여 속에 막을 내렸다.

'전주, 한지로 꽃피다'를 주제로 전통화도시 전주가 꽃으로 가득한 길만 걸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행된 올해 한지축제는 축제기간 내내 은은하고 고풍스런 전주한지를 다양하게 기획된 공연과 전시, 체험, 이벤트를 통해 만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해보다 시민의 호응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4일 열린 축제 개막식에서는 한국화가 신은미의 퍼포먼스와 소리꾼 김주리(11살 관소리 완창 최장시간 9시간 20분 기네스기록 보유)의 판소리 공연이 관객들의 아낌없는 감정을 받았다. 이어 진행된 전주한지국제패션전은 전주패션협회(회장 최경은)가 한지로 만든 아름다운 의상들이 모델의 세련되고 화려한 워킹으로 한지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2019 한국공예대전 수상작과 초대작가 작품전시는 물론, 정협 김립성 조선족지위위원회 한흥재 주석을 초청해 '중국 조선족 세시풍속화 초청전'을 함께 열어가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의 핏줄을 이어받은 같은 민족인 조선족의 세시풍속화를 보여오는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6개 초등학교 학생 3100명이 만든 한지 무궁화꽃 3100송이는 한지 꽃 정원에서 시민들에게 포토존으로 제공돼 축제 내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한지 뜨기 △한지 희망 비행기 날리기 △어린이 아나바다정터 등 어린이날을 함께 즐기는 가족단위 행사가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축제에서는 조선시대 문헌 '산가요록'에 전해지는 한지 온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 선보여 주목을 끌기도 했다. 한지명인들이 손으로 뜬 전통한지로 만든 온실은 지난해 협약을 한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가 그 제작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축제장에 설치된 한지온실은 향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가정용 한지온실 제작에 기초가 되는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한지명인 공방클래스 △한지필터피 핸드드립 △한지천연염색 △한지로 만든 세계민속의상 체험 △한지등 만들기 △어부바 인형 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한지축제를 찾는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서 SFTS 확진환자 발생

전북에서 올해 첫 치드끼 매개질환인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8면)

SFTS은 주로 작은소창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38도 이상의 고열과 소화가 이상,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치사율은 최고 40%에 달하는 중증 질환이다.

전북도는 A모씨(80·여)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SFTS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발열을 하던 중 근육통과 발열 증세를 보여 전주 시내 한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은 A씨의 몸에서 붉은 반점이 발견되고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SFTS 의심환자로 분류해 지난 2일 전북대학교 교병원으로 이송했다.

다음날인 3일 오후 보건당국은 A씨에 대해 확진 양성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전북에서는 13명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강석훈 기자

새만금 신항만 조성공사 수뢰 혐의 군산해수청 직원 입건

새만금 신항만 조성공사를 맡은 건설사에 편의를 봐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14명이 뇌물 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군산해양수산청 직원 A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군산해양수산청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배임수증)를 받는 건설사 현장소장 B모(51)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C씨는 816억원 규모의 오안축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의 현장소장인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협박을 입수한 경찰은 지난 1일 군산해양수산청과 해당 건설사, 협력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해 통해 관련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추가 입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사현장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건설사의 유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수사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기자

덕진공원 일대 산책로 연결

전주시가 도심 허파인 덕진공원 일대 생태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총 12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지산 동물원 뒤편에 개설된 산책로로 인해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하는 생태육교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이곳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지산 산책로 구간이지만 소리로 인해 생태동물과 끊기고 보행자가 단절되면서 컷부근 도로횡단시 산책하는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시는 단절된 생태통로와 산책로를 연결하기 위해 도비 6억원과 시비 6억원 등 총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이달 중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 설치되는 산책로 연결육교의 디자인을 이용자가 편리하고 주변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콘셉트로 확정할 계획이며 이후, 오는 6월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한 뒤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개설로 단절된 건지산과 전북대 학군단, 덕진공원의 생태녹지축을 연결하는 '건지산 그린브릿지 조성사업'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송효철 기자